

다리는 여성
달

高空 20m 禁女현장서 건축작업

타워크레인 기사 여성 1호 張賢淑씨



京畿安山仙府동 공작한
알파트 신축현장. 온는 93
타워크레인이 현장
를 5천여기의 아파트
를 건설할 이곳 대단지 건설
현장은 추운 날씨에도 아
전하는 張賢淑씨(26 사진)는

다부진 모습을 보이는 그
녀의 타워크레인 운전실에는
아직 2개월에 불과하지만
이 분야에서 여자는 국내
『여성1호』임을 자랑한다.

국내에 몇몇되는 여성 타워
크레인 운전기사. 가쁜 체
녀의 몸으로 높이 20m가량
의 고층에 있는 운전실에 앉
아 거대한 건축자재를 16층
옥상으로 올려보내는 하루
종일 비지땀을 쏟는다.
『맨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
걱정해주는 분들도 많았지만
지금은 크레인을 운전하는데
있어서는 남자들에게 조금도
뒤지지 않는다』

張씨는 사무직장에 근무하
던 작년 5월 신분광고에서
(주)漢陽이 모집하는 작업운
전생모집공고를 보고 용기를
내 지원. 6월 1일부터 8월
3일까지 3개월간 타워크레
인 운전실습훈련을 받고 11
월 이곳으로 배치됐다. 이때
훈련과정을 통과하고 2급기
중기면허를 받. 여성 1호 張
씨를 포함해 모두 5명. 이
후에 7명이 추가 배출돼 현
재 국내에 있는 타워크레인
여성기사는 12명에 이른다.
그녀는 과거 대표적인 『禁
女구역』으로 꼽히던 건설공
사장에 이차별 여성직종이
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
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같은
현상이 현실을 기피하는
세태에서 비롯된 人力難의
한 단면이라고 평가했다.
(金龜圭기자)